불교학술진흥상 대상 이수미 교수

한국불교학회, 19일 결과 발표

5월 12일 춘계학술대회서 시상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시행한 불교학술진흥상 논문 공모전 대상에 이수미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사진〉의 '금광명경의 삼신설에 대한 원효의 이해'가 선정됐다"고 4월 19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일본 하나조노대 박사과정 법장 스님의 '원효의 〈범망경〉 주석서와 천태지의의 〈보살계의소〉의 비교연구'가, 우수상에는 지혜경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원의 '동아시아 불교의 통합 담론 전개에서 원효의 역할', 담준 스님(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박사)의 '원효 윤리의 공리주의적 해석 가능성 검토'이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 및 수상 논문 발표회는 5월 12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화엄학에서 연기는 어떻게 이해하나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5월 13일 동국대 만해관서 '한국 화엄학에 있어서 연기의 이해'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前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의 기념 강연을 시작으로 △오카모토 잇페이(일본 케이오기주쿠 대학)의 '대승의장의 연기설' △고승학(금강대)의 '이봉현에 있어 연기와 성기' △박보람(동국대)의 '의상과 의상계에 있어 연기와 성기'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불교학연구회는 우수논문 저자를 초청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다.

'깨달음 인문학 강좌' 첫 번째 자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전남대 인문대학 1호관 313호 현공기념강의실에서 열린다. '인도불교에서 중도개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초기불교, 부파불교, 용수의 중도설을 중심으로'를 집필한 남수영 동국대 교수가 강좌를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원효 해골물 오도처는 '화성 당항성'"

고영섭 교수, 22일 화성불교유적 세미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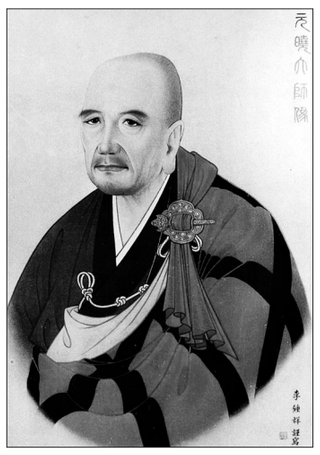
도반 의상 스님과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원효 스님이 어느 무덤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뒤 유학을 포기하고 무애행을 펼쳤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신 무덤, 즉 오도처의 위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에는 평택 수도사가 원효 스님의 유력한 오도처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효의 오도처는 평택 수도사 등 현재 사찰들이 아닌 화성 당항성(현재 당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4월 22일 한국불교문인협회와 화성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원효의 오도처와 화성 당항성 관계사 고찰'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가 원효의 오도처로 화성 당항성을 꼽은 것은 원효와 의상의 구법루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신라는 진흥왕대에 화성 당항성을 영토로 편입하고 이 일대를 나당 교통의 관문으로 삼았다. 당항진은 당나라로 나아가는 나루터였고, 이곳에는 당항지역을 관할하는 당항성이 있었다. 당항성은 경기도 화성시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2차례 걸쳐 당나라로 유학을 추진한다. 육로를 통해 고구려를 가로지르는 루트의 1차 유학은 실패했고, 11년이 지나 진행된 2차 유학은 기존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이뤄졌다.

고 교수가 주목한 것은 신라 견당사들의 루트였다. 당시 견당사들은 북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 화성으로 가는 죽령로(竹嶺路)와 경주-문경-충주-여주(수로) · 직산(육로)-화성 당은포의 계립령로(鷄立領路) 등을 주로 이용했다. 2가지 루트 중 고 교수가 주목한 것은 바로 '계립령로'다. 원효의 1차 유학은 육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죽령로를 이용했을 수 있지만, 2차 유학은 죽령로보다는 백제 고토로 가는 지름길인 계립령로를 통했을 것이라는 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



1, 2차 걸쳐 구도길 오른 원효
2차엔 鷄立領路로 화성에 도착
당은포- 中등주 유학길 추정해
"해골무덤, 신흥사 · 수도사 아냐
화성 당항성 인근 무덤일 것"

고 교수는 "신라 견당사들은 경주에서 당나라 장안까지 3~4개월 동안 육로와 해로를 통해 오갔다. 원효와 의상 또한 견당사들의 행로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계립령로를 선택한 원효와 의상은 충주 서북지역에 있는 여주 수로를 통해 남양만 당은포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원효와 의상은 당은포에서 중국 등주로 가는 항로로 당나라 유학을 떠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주에서 당은포까지 이르는 지름길이자 직선경로인 계립령로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여주 수로를 육로의 직산보다 여주 수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실제 수로는 육로보다 보행자의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구법루트를 감안하면 원효와 의상 스님이 잠을 청했던 무덤이 화성 신흥사와 평택 수도사로 국한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당시 남양만 당항포의 관할지가 당성이었고, 당성이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있으며, 중부횡단항로로 나아가는 출발지점이 남양만 당은포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효의 오도처는 당항성 인근 어느 무덤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며 "또한 원효의 오도처가 무덤이었다면 그곳이 현재의 사찰이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효 사상과 화성 당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선진규 한국불교문인협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원효의 화회(和會)사상과 평화교육(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 △원효 설화 그리고 문화콘텐츠화(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논평자로는 정희경(동국대 강사), 정성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교수), 정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향천사 아미타삼존불, 조성 佛母 찾았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15일 향천사 학술대회서

지난해 발견된 조성묵서 통해
1659년 신원 · 운혜 제작 확인
조성 연대 · 佛母 등 처음 밝혀



예산 향천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좌상. 최근에 발견된 조성묵서를 통해 조성연대와 조성조각승이 확인됐다.

예산 향천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좌상의 조성연대와 불모(佛母)의 면모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4월 15일 예산 향천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주최 · 주관한 '예산 향천사의 문화유산'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11월 발견된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조성묵서를 연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감정위원은 지난해 아미타삼존불의 얼굴과 불신에 생긴 균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존 바닥면의 묵서를 발견했다. 조성묵서에는 봉안지역과 사찰은 자세히 적혀있지 않다. 다만,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은 7명으로 불상은 1659년 음력 3월 3일 제작을 시작해 한달 보름만인 음력 4월 20일에 완성됐다.

최 감정위원은 "조선 후기 전각에 봉안되는 불상의 제작 시기는 만드는 수량과 관련 있는데, 1m 남짓한 중형 삼존불을 한달 보름만에 만들었다는 기록은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단서"라고 했다.

참여 조각승 중 눈길이 가는 것은 수화승 신원(信元)과 부화승 운혜(雲惠)다. 이들 스님들은 태화산 마곡사를 중심으로 17세기 중반 활동한 대표 작가다. 최 감정위원은 "운혜 스님이 향천사 아미타삼존불을 주도적으로 조성했고, 작품 양식적 계보를 살피더라도 절정기인 40대에 만든 것"이라고 봤다.

이어 "향천사 불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이 밝혀지면서 1650~60년대 운혜 계보가 만든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변천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운혜 스님이 조성한 몇 점의 기년명 불상이 확인만 된다면 그가 한국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은미 고성 옥천사 학예실장은 '1924년 조성된 향천사의 불교회화 연구'를 통해 1924년 향천사에서 조성된 괘불도를 비롯한 오여래사보살팔금강도는 근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계룡산화파(마곡사화파)가 조성한 작품이며 향천사 문헌기록 등을 중심으로 조성배경과 후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정원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향천사의 석조부도 연구'에서 창건주와 중창주인 의각대사와 멸운당 혜희의 석조부도에 대해 살폈다. 그는 2기의 부도가 조성 시기와 해당자의 활동 시기가 차이남을 확인하고 "임진왜란 이후 사역을 다시 정비하면서 초창주와 중창주를 기리는 마음으로 석조부도를 건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봉황 올린 新 상원사 동종 울린다

상원사, 오는 4월 29일 타종식… 도학회 교수 제작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는 문수성지이자 적멸보궁으로 유명하다. 문화재적으로는 한국의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제36호)이 있다. 앞으로 상원사에는 새로운 범종의 소리가 울리게 된다.

상원사는 "오는 4월 29일 오전 11시 새로 제작된 '상원사봉황화엄범종' 타종식을 개최한다"고 4월 18일 밝혔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신종(국보 제 29호)보다 46년 앞선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 동종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이후 동종을 보호하기 위해 모방종을 제작해 예불 등에 사용해왔다.

현재 상원사 동종 옆에 걸려있는 모방종은 지난 수십 년간의 타종으로 인해 파음(破音) 현상이 발생했고, 상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새로 범종을 조성키로 했다. 새 범종 제작에는 2007년 서산 부석사 범종과 2013년 대구 팔공산 갓바위 대종을 조성했던 경력이 있는 조각가 도학회 한서대 교수가 참여했다.

2년여 걸쳐 밀랍주조 방식으로 제작 · 완성된 새로운 상원사 범종은 '상원사봉황화엄범종'이라 명명됐다. 높이 170㎝, 지름 91㎝ 크기에 무게는 1.5t이다. 새 상원사종은 국보 제36호인 상원사 동종 옆에 걸리게 된다.

새 범종의 특징은 종두가 용이 아닌 봉황이라는 점이다. 종의 고리는 동물의 목을 고리로 쓰는 것이 편치 않아 구름을 형상화했다. 종의 상대에는 비천과 사방불을, 하대에는 십이지를 새겼다.



새롭게 조성된 상원사 봉황화엄범종

도학회 교수는 "청와대의 봉황 문양에도 볼 수 있듯이 상서로운 상징이다. 새로 만든 범종에 봉황을 올린 것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자는 의미가 담겼다"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의 두께와 타종 위치, 조형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앰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가격 : 18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